



머리가 하얗게 세듯 노인의 눈을 뿌옇게 노인성 백내장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바로 '백내장' 발병률이다. 특히 노인성 백내장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노화현상의 하나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얗게 머리가 세어가듯 점차 수정체의 투명성을 잃어가는 노인성 백내장.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눈부심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노인의 눈을 위협하는 백내장에 대해 알아보자.

글 김병엽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백내장과 교수)







우리 눈의 구조는 카메라와 매우 흡사하다. 카메라 렌즈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체의 상을 카메라 필름에 정확하게 초점을 맺게 해주는데 우리 눈에도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보고자하는 물체의 상을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 초점을 맺게 해주는 수정체는 앞뒤로 볼록한 원형의 볼록렌즈 형태를 하고 있고 갈색 눈동자, 즉 홍채 바로 뒤쪽에 위치하며 투명하기 때문에 동공을 통해서만 검게 보인다.

백내장이란 이처럼 투명하고 깨끗해야 할 수정체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뿌옇게 혼탁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보고자하는 물체의 상이 수정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망막에 정확한 초점을 맺지 못하게 되어 우리 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시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질환이다.

백내장은 노화현상이 주된 원인

수정체 역시 사람 몸의 일부이므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나이에 따른 노화현상을 비롯해 각종 외부의 영향에 의한 변화들을 겪게 된다. 각종 약물이나 대사이상, 물리적·전기적 외상 등을 이유로 세포 내 단백질이 변성을 일으켜 그 투명성을 잃고 혼탁해짐으로써 수정체 자체가 뿌옇게 되어 빛이 통과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백내장은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은 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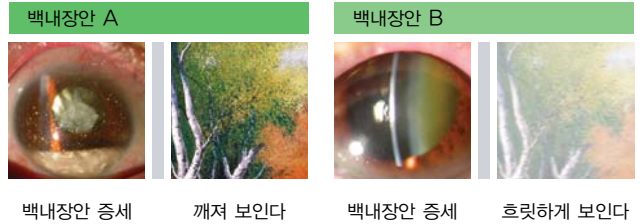
성으로 나이가 들면서 노화현상의 하나로 발생하는 노인성 백내장이다. 노화현상에 따라 수정체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비수용성 부분이 증가하고 수정체 단백질의 농도 자체가 감소한다. 생화학적으로는 수정체 내 당 대사에 변화가 생겨 세포의 성질이 변화하게 됨으로써 투명도를 잃고 나아가 빛의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성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발병률이 높아져 60대에는 60%, 70대에는 70%이상 발생한다.

그 밖에 당뇨병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전신질환, 외상, 스테로이드 제제 장기 사용 등도 원인이 된다.

시야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면 백내장 의심

백내장이 생기면 사진기 속으로 빛이 들어가는데 지장이 생기므로 사진이 잘 찍히지 않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선명하지 못하게 된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침침하다, 뿌옇다, 답답하다, 둘로 보인다, 눈이 부시다, 밝은 빛이 비치면 더 안 보인다, 가까운 글씨를 보려면 몹시 침침해진다, 정신이 흐리다 등등 그 표현이 다양하다.

실제로 백내장은 시야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며 멀리있는 사물이 불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은 매우 서서히 진행되므로 상당히 심해질 때까지는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다음으로는 밝은 곳에서 오히려 더 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백내장은 보이는 것만 변화가 생기지, 이물감이 있거나 눈물이 나거나 아프거나 하는 일은 없다.

약물은 백내장의 속도를 늦출 뿐 수술만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

치료에는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이 있다. 약물은 백내장의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을뿐, 근본적인 치료는 현재 수술밖에 없다. 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본인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때가 수술적기라고 볼 수 있다.

수술방법은 안구에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 백내장을 싸고 있는 안주머니의 앞쪽을 제거한 후 백내장을 초음파유화기로 제거하고, 남겨놓은 주머니의 뒤쪽 막 위에 인공수정체를 넣어준다. 인공수정체란 우리 눈의 수정체를 본떠 인공으로 만든 렌즈로 굴절력이 일정하여 근거리 혹은 원거리만 보이는 단점이 있으나 최근 자동초점조절,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도 개발되고 있다.

백내장 수술 후 과거에는 양 눈을 가린 채 수일이상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있어야 했으나, 최근에는 수술 즉시 거동이 가능하며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술상처부위가 완전히 아무는 한 달 가량은 절대로 눈을 만지거나 비벼서는 안 된다. 우리 손의 많은 세균들이 수술상처부위를 통해 눈으로 들어갈 경우 아주 치명적인 안내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수술 후 한 달 내에는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거나 눈을 심하게 문지르게 되면 안내 출혈, 망막 질환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음식물을 가릴 필요는 없으나 지나친 음주는 절대로 삼가야 한다. 이외에 수술 후 약 1~2주는 사물의 색감이나 선명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밝은 빛에서는 눈부심 등의 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야외에서는 선글라스나 보안경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노인성 백내장은 아직 뚜렷한 예방법은 없으나, 정확한 진단과 적기에 적절한 수술을 받는다면 대부분 좋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여라도, 안경을 끼었는데 정상 시력 1.0이 안 나오는 경우는 안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백내장을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한 시력감퇴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만 소중한 우리의 시력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게 되는 주맹현상이 있다. 이는 특히 햇빛이 화창한 야외에서 또는 일출이나 일몰 시 해를 등지고 있는 사물들을 볼 때, 야간 운전 시 반대편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출 때, 그리고 밝은 조명 아래서 책이나 서류 등을 볼 때 더욱 심해진다. 또한 눈부심 현상이 있다. 이 역시 햇빛,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형광등같은 밝은 조명 아래서 심해지며, 이로 인해 눈을 자주 찡그리거나 시리다고 느끼게 된다.

수정체의 핵이 경화되는 형태의 백내장에서선 일시적으로 가까운 것이 더 잘 보이게 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젊어져 돌보기 없이도 가까운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백내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 경우 멀리 있는 사물은 이전에 비해 더 잘 안보이게 될뿐만 아니라 가까운 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안보이게 된다. 이 외에도 백내장의 초기에는 한 쪽 눈으로만 보아도 사물이 간혹 둘로 보일 수 있다.

백내장이 너무 오래 진행되어 녹내장이나 포도막염 등의 합병증이 생기며 심한 통증이나 충혈이 드물게 발생하기도 한다.

백내장이 발병하면 눈동자가 하얗게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백내장이 말기에 이를 정도로 아주 심하지 않으면 눈동자가 하얗게 보이는 일은 드물다. 또 많은 경우에 흰자위에서 검은 동자위로 붉은 살이 자라 들어가는 익상편을 백내장이라고 오해